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이사 35,1-6ㄴ.10

화답송 | 시편 72(71),1-2.7-8.12-13.17(◎ 7ㄴㄷ 참조)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 피시네. ◎

제2독서 | 야고 5,7-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1,2-11

영성체송 |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성가 | 입당 92
영성체 174(175)

예물준비 217(216)
파견 97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박현진 스테파노
- 임 실베스테라
- 박현진 스테파노
- 임용재 야고보
영원한 안식

- 남상갑 바오로
- 김상희 세시리아
- 박경규 루치오
- 이선민 마리아

생미사 지향

- 안 마리루시 수녀님
- 이장학 토마스 건강회복을 위해
- 유현근 어거스틴 건강회복을 위해,
유현욱 건강을 위해
- 이루카 웅희 신부님
- 임길순 사도요한 영육건강
- 허강현 크리스토퍼, 정원유 정혜엘리사벳
- 유정민 안나의 빠른 건강회복을 바라며
- 이경희 루시아, 김경화 루시아, 윤 루시아
- 민재인 데레사, 최미양 마르티나
- 강민훈 사도요한
- 노유빈 빅토리아, 이루다 루시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2월 14일	정유진	이태주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정원유 허강현
12월 21일	국민준	정은철	김미혜	박성현	이영혜	조성윤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대림특강과 판공성사로
오늘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대림특강 & 집중 판공성사 일정

	시간/장소	담당
대림 특강	11:00-12:30 (산다미아노 홀)	김주남(베드로) 신부(전주 교구)
점심(김밥) 12:30PM - 1:00PM		
고해 성사	1:00PM-3:00PM (소성당 고해소)	김영민(미카엘) 신부 (메이플 우드)
		김주남(베드로) 신부 (전주 교구)
		황필규 요한카페스트라노 신부 (브루클린 교구)
		이윤희 루카 신부

- 판공성사 순서는 배부된 판공성사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대별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성사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꼭 제시간에 성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침묵 중에 성찰을 충분히 하신 후 성사를 받고, 성사 후에도 침묵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양심성찰 질문지 참조)
- 판공성사표와 성사표 제출함이 지하성당 고해소 앞 테이블에 있습니다. 성사를 보신 분들은 제출 부탁드립니다.
- 대림시기 내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다른 날짜에 성사 보신 분들도 성사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알람: 2026년 1월 1일부터 교육관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필요 물품 비치와 Korean Office의 효율적 공간 공유를 위해 Korean Office 기존 물품들의 대대적 정리 및 공간 재배치를 합니다. Korean Office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12월 17일(수)까지 모든 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후 남은 짐들은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 미사 안내

12/24(수)	7:00PM (대성전)	주님 성탄대축일 밤 미사
12/25(목)	09:15AM (대성전)	주님 성탄대축일 낮 미사

2026년 교무금 책정

2026년 교무금 책정 중입니다. 교우분들은 교무금 책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책정된 교무금은 맨하탄성당 한인공동체의 2026년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 교무금 책정서 제출처: 재무데스크

2026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6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1) 세례준비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견진준비반: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타본당 신자의 경우,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2/28까지

교육기간: 1) 세례반: 1/4-3/29

2) 견진준비반: 2/22-3/29

신청 방식: 문자신청 및 신청서 작성
(양식신청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모집 >

주제: "이 눈에 빛을 주소서"(시편 13,3)

- 일시: 2026년 2월 2일 ~ 13일 (11박 12일)
- 순례지: 터키(성 바오로와 초기교회 유적지)
그리스(성 바오로 선교 여정지)
- 영적 지도: 이윤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마감: 12월 21일 (선착순 35명)
-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 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 총 비용: \$ 3,950 + 공동경비 \$ 150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그리스어



ἐλεημοσύνη (엘레모시네, 자선)

자선은 일반적으로 고난, 불행, 재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물질적·경제적 원조를 가리키지만, 그리스어 '엘레모시네'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인 '동정(同情)'을 의미합니다. 곧, 자선은 단순한 경제적 원조를 넘어 자비로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루카 11,41; 사도 9,36)

예수님은 자선을 단식과 기도와 더불어 신앙생활의 주요 요소로 여기셨습니다.(마태 6,1-18 참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시편 24,5; 이사 59,16) 그분을 믿는 이들의 성실한 응답(신명 6,25)이 자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참된 모습은 다름 아닌 '자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 김병진 바오로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교육원장)

* 출처: <가톨릭부산>, 2902호, 12월 14일, 2025.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열 체험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평화를 빕니다!

우리 본당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시기 동안에 깨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며 ‘신앙 감각’을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대림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대림 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고, 둘째 부분은 12월 17일부터 24일 성탄 밤 미사 전까지로 주님의 성탄에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7일부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더 기쁘게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이때 모든 성당들에서는 성탄 장식과 구유 장식이 직접적으로 준비되며 성탄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년도 사목 방향인 ‘영성의 해’를 준비하는 지도신부인 저의 마음은 설렘과 더불어, 보다 더 그리스도로 무장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오늘로써 “내년을 영성의 해로 선포하며”, 한 해 뒤인 2027년도에 있을 한인 공동체 30주년을 준비하는 주년으로 살아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준비와 신앙 감각을 앞세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심활동 그리고 한인 공동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하고 또한 이때까지의 매너리즘(Mannerism)을 성찰해야 합니다. 청년회는 능동적으로 이러한 성찰을 위해, 매월 둘째 주에 있었던 청년미사를 중단하고 매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할 것입니다. 또한 본당의 레지오, 성령기도회, 울뜨레야, 기도모임과 성경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더욱 함양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단체장 워크숍’은 본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훌륭한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제하고 평가하며 결정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안에 동의하며 실제적 난항을 겪는 것은 튼튼하지 못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1, 37)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성모 무염시태” 복음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당의 교적을 둔 가구 수가 300여 가구가 된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1년 예산이 20만 불로 예상되며, 단순 수치로 “매달” 교무금으로 한 가구 당 minimum 80불 이상을 책정한다면, 공동체 운영과 단체지원금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교회의 애덕 사업과 본래적 목적의 필요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가구 정도 교무금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회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의한 교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며 우리 자신을 일깨웁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며, 더 겸손하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17,10)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교회법 제222조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교회법 제1260조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타고난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의무로 매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치와 공동체의 영적 선익에 참여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0항은 교회의 활동과 단체들은 신자들의 재정적 협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평신도는 이를 사도직의 헌신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헌장33항은 교회의 사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물질 지원도 사도직 참여의 하나로써 포함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이미 새해를 가리켜 “가해”로 불립니다. 새해의 신앙적 다짐과 함께 여러분의 숨은 노력을 교회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며, 공동체를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 사랑의 봉헌이며,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지도 신부: 이윤희 루카OFM)